매출액 기준 광주·전남 기업 순위표

100위권 현대삼호重 '유일'

삼성광주전자 등 33개사 1,000대 기업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국 100위 안에 든 기업은 현대삼호중공업(주)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천976명의 직원을 보유한 현대삼호중공업은 2조6천168억원의 매출을 기록, 93위에 올랐다.

광주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정보를 토대로 '2007년 매출액 기준 1천대 기업'중 광주·전남소재 기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33개사가 포함돼 전년보다 1개사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광주지역은 18개, 전남은 15개사였다

현대삼호중공업에 이어 삼성광주전자(103위·2조4천억원), 한국바스프(116위·2조1천억원), 금호타이어(124위·2조원), 금호산업(129위·1조9천억원), 광주은행(233위·9천760억원), 금호피엔비화학(291위·7천300억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308위·6천8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남양건설(317위·6천500억원), 백제약품(414위·4천800억원), 대주건설(420위·4천700억원), 금광기업(458위·4천260억원), 삼능건설(540위·3천500억원) 등이 중간순위에 머물렀다.

한편 전국에서는 삼성전자가 63조원으로 1위였고 현대자동차(30조4천890억원), 한국전력(28조9천800억원), LG전자(23조5천억원), 삼성생명보험(23조3천970억원) 등이 상위 2~5위를 차지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일감 좀 없나요" … 전문건설업 '아우성'

올들어 광주·전남 20개 업체 부도처리

공사비 현실화·공사대금 현금 결제 시급

건설경기 침체와 건자재값 급등 등의 여파로 일반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커지면서 각종 현장 공사를 담당하는 전문건설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공사비 현실화 및 공사대금 현금 결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전남도회에 따르면 올 들어 광주·전남지역에서 부도처리된 전문건설업체는 총 20곳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총 부도 건수(14건)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시장 침체와 건자재값 폭등 등으로 인한 업계의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올해 D업체와 Y업체 등 관내 10위권 업체 2곳을 비롯해 10곳이 부도처리됐다. 전남도 G업체 등이 일반건설업체인 거림건설의 부도 여파로 문을 닫는 등 부도업체가 10곳에 달했다.

이처럼 전문업체의 부도가 잇따른 것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일반건설업체의 자금난 심화와 업계의 과잉경쟁으로 인한 실적 감소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미분양 주택 급증과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일반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가 전문건설업계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광주는 지난해 실적을 신고한 전문건설업체 679곳 가운데 공사실적이 10억원을 밑도는 업체가 387개에 달했다. 이는 지역 업체 10곳 중 6곳 가량의 실적이 손익분기점을 밑돌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주택업체와의 계약건수가 771건에 그쳐 계약물량이 1년새 24.4%나 급감한 데다 무실적 등을 이유로 실적 신고 조차 하지 않은 업체가 140곳에 달할 만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선 건자재값 급등 등에 따른 공사비 현실화와 공사대금 현금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22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건설공사 발주관계관 초청 간담회'를 갖고 전문공사 시공영업 보호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광주시회는 광주시청 등 공사발주기관 관계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각종 전문공사의 경우 전문업체에 직접 발주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전문공사업 발주 ▲6억원 이상 전문공사발주시 지역 업체와 49% 이상 공동도급 의무화 ▲82% 이하의 저가하도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강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문건설업체**=건설업계는 일반건설과 전문건설로 나뉜다. 일반업체는 아파트 등을 지을 때 공사를 종합적으로 시공·관리한다. 전문업체는 토목공사, 상하수도설비, 도로포장 등 각 분야의 실질적 공사를 맡는다. 현재 광주·전남에는 3천664개의 전문업체가 있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디지털미디어총괄'로 재편

삼성전자가 22일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면서 생활가전사업부를 디지털미디어(DM) 총괄로 재편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그동안 실적부진에 시달려온 생활가전사업부 폐지 문제는 조직개편안이 검토될 때마다 거론돼왔다"면서 "생활가전사업을 DM총괄로 옮기면 냉장고·에어컨 등 생활가전이 평판TV 등 영상가전과 기술융합, 영업망 공유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기술총괄은 삼성종합기술원과 통합되고, 통합된 조직은 황창규 사장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종합기술원은 최근까지 임형규 사장이 원장을 맡아왔지만 임 사장이 삼성전자 신사업팀장만을 맡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공석으로 남았다.

삼성전자는 또 신사업팀을 중심으로 솔루션 사업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홈 엔터테인먼트 로봇 등 신(新) IT제품, 에너지·환경, 바이오·헬스 등 신수종 사업발굴 작업에 가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光銀 - 신보 협력 호남권 中企 지원

광주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호남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22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광주 창업플라자 지점이 최근 '호남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협약은 신보가 해당 업체에 대해 보증액의 1.2%인 보증료를 최대 0.6%포인트까지 낮춰 보증을 서주도록 돼 있다. 이 때 광주은행은 최대 0.3%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다. 대출 자격은 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중기로, 신용도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된다.

/최경호기자 choice@

지난 21일 중국대반점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2008 전세계 대리점 대회'에 참석한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총괄 부사장과 해외영업본부 관계자, 전세계 사장단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2010년 해외 판매량 190만대"

전세계 대리점 판매 목표

기아자동차가 해외 대리점 사장단에게 2010년 해외시장에서 총 190만대를 판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21일(중국 현지시간) 중국대반점 컨퍼런스홀에서 2008 전세계 대리점 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판매목표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총괄부사장과 이형근 해외영업본부장을 비롯해 기아차 해외영업본부 관계자, 전세계 대리점 사장단 등 총 230여명이 참석했다.

기아차는 이 자리에서 2010년 해외시장에서 총 190만대(해외생산분 포함)를 판매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현지생산 ▲전략형 신제품 출시 ▲디자인 경영 본격화 ▲브랜드 인지도 향상 ▲판매 네트워크 정비 등을 설정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해외시장에서 총 108만8천421대를 판매한 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25.2% 증가한 136만3천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이와함께 독특한 디자인 철학이 담긴 신제품을 적기에 출시해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은 "앞으로 출시될 제품에 반영될 기아차의 디자인 방향은 역동성(Dynamic)과 재미(Fun)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인천 직항편이라도"

국제선 떠난 광주공항 보완책 촉구

광주商議 등 지역 경제단체

광주·전남지역 경제단체가 광주~인천공항 직항로 개설 등 국제선 이전에 따른 광주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여성경제인협회광주전남지회, 광주시관광협회 등 4개 단체는 22일 전남 무안공항으로 국제선이 이전되는 데 따른 광주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무안~광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28일에 맞춰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키로 함에 따라 광주공항과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의 무안공항 이전은 광주공항 및 광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선행된 뒤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광주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광주~인천공항 국내 직항노선 개설, 광주~무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무안공항 명칭의 광주·무안공항으로 변경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도심에 위치해 개발에 장애를 주고 있는 공군탄약고 이전도 아울러 요청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전남 농축산물 페스티벌' 5억5천만원 판매고

지난 15~17일 전남도와 전남농협이 공동 개최한 '녹색의땅 전남 농축산물 페스티벌' 행사가 5억5천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에는 곡류와 원예작물, 채소류 등 100여 품목의 농축산물이 판매됐으며 특히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영광굴비와 모시잎떡, 잡곡류, 쌀막걸리, 미역, 다시마, 주대마늘,완두콩 등이 수도권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전남농협은 서울지역 대형유통업체 및 학교급식 납품학교 등과 전남농축산물 구매약정계약을 체결, 800억원의 전남농축산물의 판로를 확보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